

## V. 지역사회 간호관리의 평가기능

홍 춘 실 교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평가란 “목적에 의한 관리”와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란 원리의 부산물로서 평가를 소개하였다. 평가는 또한 이해적인 관리의 원리와 관계된다.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의 가치를 밝히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이미 관리의 목적 즉 성취나 수행, 관리 결정의 성질을 언급하였듯이 보건의업을 다루는데 필요한 관리결정의 평가는 ① 효과 혹은 결과의 성취 ② 활동 수행의 효능성 ③ 자원의 경제적인 활용에 관한 것이다. 평가가 일차적으로 효과나 결과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의도된 결과인가? 아니면 가치있는 결과인가?로 질문하여 둘다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때 결정은 계획된 것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쉬게 된다. 만일 대답이 어느 하나 부정적이라면 다음 결정은 목적이나 활동 또는 둘다 모두 재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행과 관련과 평가에 대한 ①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좋은 결과인가? ②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기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별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 만큼 결과가 미치지 못할 때는 장애물을 피하고 유리한 형편대로 활동을 계획하고 인격배치, 자원활동등을 다른 형태로 바꾸도록 결정한다. 보통 이런 결정은 계획의 마무리 단계보다는 일시적 또는 정기 평가를 기점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성에 관한 평가는 똑같은 결과를 싼 비용으로 성취할 수 있는

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자원의 대체에 의해서 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바람직한 결정은 좀더 경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특별한 통제 결정은 매년 예산을 준비하는데 쓰이고 있다. 평가의 주 관리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결과 일반적인 접근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측정하고 ② 이전에 명시된 규범이나 표준 또는 유도된 결과와의 비교 ③ 어떤 가치가 만족스러운지 그 범위를 판단 ④ 결정등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보건팀은 담당지역에서 80%의 임부의 산후 방문을 기록에서 얻었다. 그 목표는 75%이였으므로 목적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여성의 거주분포를 볼 때 먼 지역 세개 촌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목표달성은 동등한 혜택을 받기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때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는 보건 업무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평가는 일차적으로 효과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효과를 위해 적용범위 또는 동등한 혜택기회 아니면 두가지 모두를 잘 측정하였는가? 만약에 보건요원이 적은 비용으로 끌고루 모든 마을에 보건업무를 제공하는 것보다 가까운 마을에 이 노력을 집중하여 적용대상을 초과할 수 있다면 보건요원의 활동은 더욱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효과란 단순한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보건요원은, 지역사회의 많고 다양한 요구를

만나려고 노력하며 가급적이면 긴급한 요구를 우선 해결토록 노력한다. 효과란 극가적인 우선권을 가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영양, 상수도 공급, 전염병, 가족건강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적인 목표를 선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을 계획한다.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방법으로 실시된다. 그러므로 평가의 개념은 한곳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측정코자 하는 효과의 의미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효과에 대한 좋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① 계획이나 집행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일 그렇다면 ② 어떤 방법으로 평가결과가 결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 지는가? ③ 얼마나 많은 효과를 결정하므로 올렸는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미 들은 평가에 대한 실패에서 다음과 같은 집행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팀은 세계의 떨어진 촌락에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언제하며 인력과 자원의 배치는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재조정해야 하는가?
- b) 혜택받지 못한 촌락을 위해 봉사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주며 자원은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 c) 적어도 10%의 인력, 시간과 자원은 떨어진 세계 촌락에 투입될 수 있는지, 이것은 이에 혜택받은 촌락에서 75%보다 적은 목표이겠으나 이 촌락에서는 0%~50%를 올리는 바람직한 개선이 될 것이다.

적용범위와 분포는 집행결정에 필수적이고 그런 결정을 수행하도록 돕고 지지하므로 적용범위와 분포는 효과성에 대한 적당한 지표가 된다.

평가에서 관리의 기능은 결정을 위한 유용한 효과의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보건팀은 가족과 펄프 비율이 1:45인 10개 촌락에 정수공급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목표는 그 비율이 1:20이었다. 계획 중간의 비율 평가는 1:40으로 나타났다. 중간 결

과를 보았을때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에 진척이 없으므로 이 계획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펄프와 가족수에 대한 비율은 효과를 위한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계획에 사용된 지표가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평가를 시도한 이유가 경험에서 배우기 위함이라면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만 한다. 즉 성공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흔히 성공을 가져왔던 일의 전체 흐름을 보고 또 성공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제한점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 ① 정수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 ② 설치할 펄프 유형이 지역사회에 적당한가를 판단한다.
- ③ 지역사회가 정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④ 지정장소에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 ⑤ 장비를 시험해 본다.
- ⑥ 펄프설치를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 ⑦ 지방정수체제의 제정적인 뒷받침이 있는지를 진단한다.

이러한 면에서 산정이란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의 분석과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산정이란 지속적인 평가이지만 깊이가 있는 반면 평가는 효과가 어떠한가를 나타낸다. 평가기능은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라고 물으므로 그 자체가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기술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 관리의 자체평가는 흔히 관리감사로 간주되며 이것 또한 평가기능에 속한다. 관리는 위의 예에서 보듯 야기된 중요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언제 어느 곳에서 그것이 필요한지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건으로 참고문헌은 관리의 감독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가감독은 관리의 보조적인 기능이 된다. 끝으로 회환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데 필수

적이다. 보건팀이 평가를 할때 보건요원이 토에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면 요원들의 회환과정 참여는 즉각적이게 된다. 특히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해당분야의 의사결정자와 평가결과나 해

석이 교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원칙과 평가에 대한 것으로 성취하지 못한 원인 평가는 관리의 초점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평가는 먼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함이 타당하다. ㉔

〈15페이지에서 계속〉

것이 잘 적용되어 있는데 그는 hospice movement를 주장하면서 공포, 긴장, 피로 그리고 심지어 죽는병의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인간관계

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healthy dying을 요구하는 바 죽음이 영광스럽고 초월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㉕

〈19페이지에서 계속〉

하여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인간 존엄성의 기본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과 행위의 요청이다. 오늘의 주제 "간호업무와 윤리"는 이상 10개항의 한국 간호원의 윤리강령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소견을 대신코져 한다. ㉖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지, 서울. 1981. (통권79호)

박춘택, 논리학, 서울: 박영사, 1976.

이영복, 간호사회학, 서울: 수문사, 1977.

이영복, "간호원을 위한 직업윤리", 대한간호. 통권 59호(1972).

전산초, 김수지, 변창자, 간호철학·윤리, 서울: 수문사, 1979.

참 고 문 헌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68.

## 부정 심리 추방하여

## 건전 생활 이룩하자